



대전주보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2년 9월 25일(다해)

발행 김종수(제2700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연무성당 갈매울공소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목곡1길 15-4 (가야곡면 목곡리 294-7)

제1독서 아모 6,1ㄱㄴ.4-7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1티모 6,11ㄱㄴ-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복음 루카 16,19-31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신학교 지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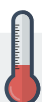
10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홍성·서산·당진·보령

예비신학생 모임

10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홍성성당

교구 예비 성소자 모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2년 사랑의 온도현황

66.2℃ 총 모금액 662,659,113원

[9.5~14 모금액] 25,050,867원
본당 8,277,000원 / 단체 및 개인 16,773,867원



희생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행하여라



안성준 도미니코
이주사목 대전모이세 전담

로 마음이 쓰이는 친구들은 이주노동자 친구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친구들 중에, 좋은 환경에서 교수로, 강사로, 선생님이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곤 합니다.

친구들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합니다. 자신들의 벌이로 가족과 친척들이 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도 할 수 있다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한편으로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희생으로 사명이 완수되면 좋련만,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뜻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죠. 어떤 친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오히려 빚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모아둔 돈을 친구에게 사기당해 모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안쓰럽지만,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아픈 사건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뺏길 때입니다.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이고자 60-70년대 흔하게 보던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리

고는 남은 돈을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한국에서 이주민 친구들의 한달 월급이 본국의 5-10배이니 사실 본국의 가족들은 부족한 형편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본국의 가족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조금 더 돈을 보내달라고 한답니다. 친구들은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여기서 아끼고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들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현재의 만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본국에 보낸 돈이 모두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비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귀국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일을 계속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가 되어갑니다.

한번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영상통화가 왔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친구는 전화를 끊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자신은 오늘 먹은 게 빵 한 조각이 전부였기에...

어찌보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고결한 가치는 가족들 중 누군가 그 희생에 감사하며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뜻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곤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떠올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의 희생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그 뜻을 살리고 노력하는가?’

()에 여러 사람들을 넣으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애절한 시선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984)
유판식 토마스



이주사목부 대전모이세 사람은 꽃보다 동물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대전 모이세는 이집트라는 타지에서 고생하며 노예살이 하던 자신의 민족을 해방으로 이끌었던 구약성경의 모세 성인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곳에 정착하여,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여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신설되었고, 그 명칭을 모이세로 정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교구는 이 시대 버림받고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주민에게서 찾았고, 이에 이주민 사목을 전담으로 신설하여 그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주사목부에서는 모든 이주민들에게 사목적(영어미사와 모국어미사, 성사), 사회복지적(다문화가정 지원, 의료지원, 노동상담지원, 문화생활지원, 상설부티크 등)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애완동물을 그들의 가족이라 말하며 물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전의 다짐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신학생 때,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생활하면서 군종신부의 반려견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일 때 아팠던 그 신부의 반려견을 병원에 데려가며 약을 먹여가며 돌보았는데, 군종신부는 그 반려견에게 사료가 아닌 밥을 주길 원했습니다. 군종신부는 부재중에도 전화를 해서 제 안부가 아닌 반려견에게 밥을 줬는지 여부를 묻곤 했습니다. 군종신부가 부재중이라 쉬고 싶어도 밥을 줘야

했기에 저는 반려견을 위해 밥을 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대 이후에도 화분에 정성스레 물을 주면서도 사람에겐 냉랭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길거리 동물들은 챙기면서도 길거리 사람들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하고 아끼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이런 다짐을 하며 살아간다 하여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아가면서 만나가는 사람 모두가 동물이나 식물보다 아름답진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동물보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꽃보다 동물보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Agere sequitur esse(행동하는 것은 존재를 따른다)라는 윤리적 공리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적어도 “짐승만도 못한 X”이라는 표현은 듣지 않아야겠지요.

이주민들이 대전 모이세를 찾으며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날 따뜻이 맞이하는 곳.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 먼 타지임에도 가족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 그래서 떠올리면 감사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 오래도록 함께하고픈 곳.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곳.

모이세가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모이세의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수많은 은인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성준 도미니코 신부 이주사목 대전모이세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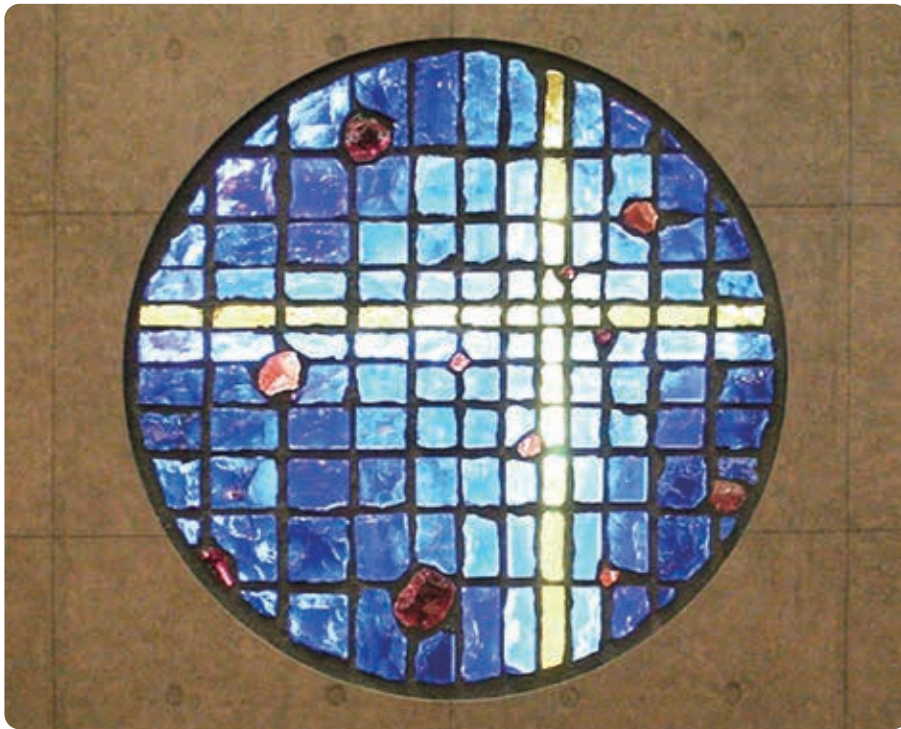
우리가 뿜어대는 대량의 탄소를 지구의 대기가 더 이상 안전하게 흡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연은 무한하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자원이 고갈되면 그 자원 대신 갈아탈 수 있는 다른 자원이 무한대로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지닌 위대성과 창조성에 대한 무한한 신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집단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온실가스 대량감축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예산적자는 우리 생명과 연결된 자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결손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모든 관련 계획은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186항)”.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임상교 대건안드레아 신부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스테인드글라스 이야기 ⑩

부산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소성당 원형창 「염원」

- 재료 : 판석유리 (Dalle de verre)
- 크기 : 지름 120cm
- 제작 : 2010년

제작의도

빛으로 퍼져 나가는 십자가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넘어선 빛이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1-5).

열한 개의 포도 열매는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선 열매이다.
 원형창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지막 열두 제자를 채우는 의미의 열매가 될 것이다.

손승희(손소벽 막달레나) 유리화 작가



연무성당 갈매울공소



신유박해(1801)를 피해 이주해 온 교우들에 의해 갈매울에 신앙이 전해졌다고 한다. 1887년 두세 신부의 담당 공소로 99명의 신자가 있었고, 1896년 11월 4일 위털 주교가 이곳을 방문하였다. 갈매울공소는 웅기를 만드는 교우촌으로 1920년대에는 웅기 가마가 3개소 있었고 80호에 이르는 가구가 점촌 공동체를 이뤘다. 아쉽게도 웅기점은 1983년에 폐업하였다. 현 공소 건물은 1953년 논산본당 생제 신부가 원조를 받아 시멘트벽돌조(82.5㎡)로 건축하였다. 유서 깊은 신앙의 전수로 그동안 2명의 사제와 6명의 수도자가 배출되었다. 현재 원로사목자의 방문으로 월 3회의 주일미사와 평일미사가 있으며 35세대 78명의 신자 중에 30여 명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언어 ‘케추아’

선교사로 살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언어’입니다. 현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언어의 한계에 자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리마에 살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사용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자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안데스 고산지역의 대부분 마을은 케추아(Quechua)라는 원주민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를 가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스페인어가 아닌 케추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곳의 교육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각 산마다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도 아이들은 한참을 걸어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케추아를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사를 케추아로 봉헌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케추아로 짧게 인사를 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케추아로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저를 보면서 할머니들께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수줍은 미소로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공소에 일찍 가서 할머니들 옆에 앉아 케추아 단어를 배우곤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케추아로 말할 때, 활짝 웃으며 즐거워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박상호 라파엘 신부
해외 선교(성골롬반외방선교회 파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주사목부 대전모이세를 소개합니다

교구는 2003년 1월, 낯선 문화와 환경과 언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에게 사목적(미사, 성사), 사회복지적(상담, 의료, 문화체험 등) 도움을 주고, 한국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주사목부를 신설하였고, 초대 전담신부는 명칭을 모이세라 정하였습니다. 대전 모이세는 대전 5개 지구(금산지역포함), 논산지구(부여지역포함), 공주지구(세종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근로자들, 유학생들, 내국인과 결혼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영어미사와 모국어미사(필리핀 타갈로그어 미사, 인도 티모르 미사, 베트남어 미사, 스페인어 미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사회사업(다문화가정, 노동, 교육, 의료, 공동체, 문화행사, 상담 및 지원), 일반사업(언어학교, 상설 부피끄 운영, 물품판매사업, 후원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모이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일깨움과 동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친구로 있으려 합니다. 대전 모이세가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42)639-2666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150번길 16,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별관 3층
홈페이지 <http://moyse.djcaritas.or.kr>, <https://www.facebook.com/tjmoysenu>



알립니다

교구알림

교구법원 공시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나오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 방준오(사도요한) (1970년생)
이강노 (1965년생)
- 담당판사 : 박지목 신부
- 때 : 10.5(수)까지
- 문의 : (044)270-3060 교구법원

대전교구 탄소중립선포미사 봉헌 안내

- 때·곳 : 9.26(월) 19:30, 주교좌 대흥동성당
- 미사집전 :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 문의 : 생태환경위원회 010-3452-9702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연대활동 안내

- 창조시기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삼척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현장을 방문
- 때·곳 : 9.30(금)~10.1(토), 팽방해변, 삼척시내
- 버스 이동으로 사전신청 필요
- 신청·문의 : 생태환경위원회 010-3452-9702

걷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19차 생태적 걷기

- 프로그램 : 미사, 바르게 걷기 강의, 자연 명상
- 때 : 10.15(토) 09:00~15:00
- 곳 : 청양성당 인근
- 참가비 : 1만원 / 신청마감 : 10.5(수)
- 신청·문의 : 생태환경위원회 010-3452-9702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9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곳 : 9.27(화) 19:30, 궁동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전담사목

청년 성시간

- 때 : 9.28(수) 19:30
- 곳 : 하품센터(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청년 누구나
- 주제 : 숨어 계시는 예수님!
- 진행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daum.net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청년 연인)

- 때 : 10.16(주일) 13:00~17:00
- 곳 : 하품센터 / 참가비 : 2인 2만원
- 대상 : 청년(연인, 신혼 / 예비부부)
- 주제 :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 신청 : <http://hapum7179.godmall.com/>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치유미사

- 때·곳 : 매주 화 14:00, 새얼센터
- 내용 : 미사, 치유기도, 안수 등
- 차량운행 : 지역역 2번 출구 13:40 대기출발
- 기타 : 9.29(목) 다섯째 주 기도회 휴회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젊은이 온라인 방구석기도회

- 때 : 9.27(화) 20:30, ZOOM 온라인
- 주최 : 아자리아 선교단
- 문의 : 카카오톡[아자리아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azariah_2021]]DM문의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위한 222차 ME 주말

- 때 : 10.21(금) 20:00~23(주일) 17:00
- 곳 : 수리치골성지 피정의 집
- 대상 : 결혼 2년이상 된 부부(종교불문), 성직자, 수도자
- 문의·신청 : 010-2611-6788, 010-9946-3107
<http://familia.djcatholic.co.kr>

카나혼인교리

- 비대면교육으로 진행
- 문의 : (042)256-5487~8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가정사목부

본 당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사진전

- 때 : 9.23(금)~10.2(주일)
- 곳 : 당진성당 로비, 카페 등

천안쌍용3동성당 사무장 채용 공고

- 자격 : 영세 3년 이상 신자, 회계전산 업무 및 컴퓨터 사용 가능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 : 9.30(금) 도착분까지 우편 혹은 방문 접수(사무실)
- 서류전형 후 개별적으로 면접 연락

관동동성당 사무장 채용 공고

- 조건 : 영세 3년 이상, 전산 회계 가능, 운전면허 소지자, 본당신부 추천서
- 서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자격증 사본, 교적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문의 : (042)543-0236

대전성당 새성전 봉헌식

- 때 : 10.8(토) 10:30
- 곳 : 대전성당
- 주례 :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 축하음악회 : 10.7(금) 19:00 국악 연주회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휠체어 나눔요청

- 내용 :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 나눔 요청
- 목적 : 일시적으로 가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무상대여 / 수거기간 : 상시
- 문의 : 운영지원팀 (042)322-1304

천안유랑동 사제관 직원 채용 공고

- 모집 : 주방도우미 / 자격 : 영세 3년 이상
- 서류 : 본당신부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070-4211-2530

전의요셉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

- 모집 : 요양보호사 / 업무 : 입소어르신 케어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 방문 및 이메일(nanumtur@gmail.com)제출
- 주소 : 세종시 전의면 삼성당 1길 51-32
- 문의 : (044)862-8268 담당자 이명주

무료 상담소 "애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읍내동 현대아파트 옆 새마을 금고 2층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문의 : (041)950-1008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생활 가능 / 간병인 상시 모집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파티마 세계사도직(셀)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10.1(토) 시작기도 09:30, 미사 10:3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4939-8688

2022 대전 하루 마리아폴리

- 때 : 10.23(주일) 09:00~17:00
- 곳 :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
- 주제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10,37)
- 대상 : 누구나(종교무관)
- 참가비 : 25,000원(성인), 20,000원(중고생), 17,000원(유초등)
- 문의 : 010-6384-8275, 010-9588-4908

대전교구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때 : 매주 수 19:00~21:00
- 대상 : 초3~중3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2059-2610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교정과전문의 홍성규(미카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명교정
타임월드네거리 T. (042)482-3601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MRI 2대)
원장 : 김경훈(요한), 김재환(필립보) 외 9인 협진
T. (042)489-8888 유성온천역 1번 출구 5분 거리

맑은눈 안과

라식, 라섹, 노안, 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포 강희권 울리오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 충남의대 교수
T. (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원칙 없으신 성모기사회 미사

- 때 : 매주 둘째주 토 09:20 칠락목주기도 10:00 미사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6408-6562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유전동성당 성심유치원 운전기사 채용 공고

- 자격 : 대형면허소지자(61~66세)
- 이메일 접수 : smile439@hanmail.net
-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042)583-4714

제32회 한국가톨릭매스컴대상 공모

- 1) 신문, 출판 2) 영화, TV 3) 라디오, 인터넷 4) 교구, 수도회 출판물
- 2021.10.16~2022.10.15 발표작품
- 마감 : 10.15(토) 마감 우편, 메일 접수
- 주최회의 : www.cbck.or.kr 참조
- 주최회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 www.holyfcac.or.kr

면형강학회 6기 회원 모집

- 목적 : 순교 영성으로 신앙을 심화하여 주님과 일치
- 내용 : 기도, 강의, 친교, 중식, 미사
- 때 : 10:00~15:00 / 월 1회
- 화요일 : 매월 둘째 주 화(개강 9.13)
- 토요일 : 매월 셋째 주 토(개강 10.15)
- 곳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대전 관구원 교육관(천안)
- 문의 : 010-7277-5649

시각장애전문교육기관 충주성모학교

- 과정 : 유·초·중·고·전공과(5개 과정)
- 대상 : 시각장애 및 시력 사용이 불편한 사람 (연령 무관)
- 지원 : 무상교육, 기숙시설, 통학,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등
- 특전 : 35종 장학금, 안마사자격증 취득, 일자리아업 참여 등
- 문의 : (043)852-1374, 843-1374

이스라엘 성지순례 (2023년)

- 62차 : 1.4~1.12 (9일, 425만원)
- 63차 : 2.27~3.7 (9일, 425만원)
- 문의 : 010-9704-9495, www.terrasanta.kr
-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가톨릭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1차 : 9.13~10.6
- 문의 : 입학홍보처 (054)851-3021~2
- http://ipsi.csjac.kr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 때 : 10.18~20, 11.18~20, 12.5~7
- 곳 :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통합사목센터
- 대상 : 개인, 단체누구나(구역반장 피정 환영)
- 문의 : 010-9670-9775, 010-2231-2074



수도회 및 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말씀피정 : 10.5(수)~8(토)
- 성경완독 : 10.21(금)~29(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낙태 후 화해피정

- 때 : 10.14(금)~16(주일) 회비 없음
- 곳 : 우이동 명상의 집
- 문의 :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수도회명(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2(주일) 10:00	서울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010-3705-8184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전화 문의	전화 문의	010-9353-1773

2022년 제12차 해외선교의 날

실시간 참여
유튜브 cpbcTV 채널

“행복하여라!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들”(마태 13,44 참조)

일시 2022. 10. 1(토)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성당

사회 김슬애(CPBC 마나문서)

패널 안광훈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마필운 신부(마리놀외방선교회)
양 호 신부(서울대교구)
박경환 신부(수원교구)
김미진 수녀(성령선교수녀회)

공동주관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해외선교·교토사목위원회
후원 교황청 선교기구 한국지부 cpbc 국제선교사목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수도생활단정상연합회 한국천주교대지정상연합회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위한 나눔

후원계좌

하나은행 660-910016-45805
(재)대전교구천주교유지재단

모금기간

2022년 9월 30일까지

문의

(042)636-1331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의 교수 / 현 충남대의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중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11월 독일 스위스.이태리 12월 성지순례 제주도.한국성지167 성지순례 모집 미카엘 여행사 T. 010-8650-9690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노인사목부] 봉사자 소명교육



노인사목부(전담 양희창 신부)는 본당 노인사목 담당자의 소명과 신앙을 위한 봉사자 소명 교육을 실시했다.

『말씀 그 신비(저자 김종수 주교)』 교재를 통한 6주간의 본당 내 그룹 연구와 1회의 강의로 이루어진 총 7주간의 교육을 9월 5일(월) 교구장 김종수 주교의 특강으로 마쳤다.

북한이탈청소년 '꿈 이룸' 프로그램 협력기관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와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전담사제/위원장 권지훈 신부)는 8월 31일(수) 『북한이탈청소년 '꿈 이룸' 프로그램 협력기관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청소년 '꿈 이룸' 프로그램』이란 우리지역에 정착한 청소년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하기 위한 '동행'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환경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성서] 제33회 만남의 잔치



청년성서(전담 강진영 신부)는 제33회 만남의 잔치를 8월 28일(주일) 성남동성당에서 했다.

‘만남의 잔치’는 시즌 동안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과 봉사자 모두 모여, 주교님으로부터 ‘말씀의 봉사자’로 파견되는 축제이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의 주례로 거행된 파견 미사에서 함께한 청년성서 가족들은 앞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기쁘게 받고 파견되었다.

[청소년국] 대가대협의 날(D-Day)



청소년국(국장 조수환 신부)은 8월 27일(토)~28일(주일), 청소년국에서 대가대협 회원들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2학기를 준비하는 D-Day(대가대협의 날)를 했다. 특별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짊어진 고민과 십자가를 나누고 격려했다.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기 간 2022.11.18(금) 17:00까지(성 요셉 장례지도사 12.16(금), 17:00까지)

대 상 신앙생활의 진보를 원하는 교우

모집 과정	수업 일시	지원 서류
교리신학원	매주 화, 목 14:00~17:10	원서, 추천서, 세례증명서, 접수비 1만원
교리신학원 심화과정	매주 화 14:00~17:10	원서, 접수비 1만원
전례음악원	공통과목 - 매주 화(오전)	원서, 추천서, 세례증명서, 접수비 1만원
전례꽃꽂이 심화과정	매주 화 14:00~17:10	원서, 접수비 1만원
성 요셉 장례지도사 교육원	매월 2박 3일 1회(개별 안내)	원서

원 서 홈페이지 접속 > 자료실 > 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문 의 (044)860-7230 주 소 세종시 전의면 가톨릭대학로 30 홈페이지 <https://www.dccatholic.ac.kr/edu.php>